

전남도 섬 관광 청년 기획자 키운다

전남관광재단 함께 '청춘어람' 사업 청년 섬 체류 자원 발굴 관광상품화 27일까지 아이디어 공모전 통해 선발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이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청년 인재를 양성하고, MZ 세대를 겨냥한 젊은 감각의 체류형 섬 관광상품 기획·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섬 관광기획자를 키우는 '청춘어람 육성사업'에 나선다.

"청춘어람 육성사업"은 청년이 만드는 어촌관광의 요람을 뜻한다. 청년이 직접 섬에 체류하면서 섬 전문가, 주민들과 함께 섬 고유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상품을 기획한 후 관련 기관과 기업에서의 인턴십 교육을 통해 관광상품까지 진행되는

인력 양성 실천 프로그램이다.

사업의 첫 단계로 관광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청년 인재 발굴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전남에서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섬 스테이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주제는 '000이(가) 머무는 곳, J(전남)-SUM'으로 전남에 있는 섬 중에서 자유롭게 대상지를 선택하고, 여행 주제에 적합한 스토리를 입힌 섬 관광상품 제안을 통해 섬 자원을 활용한 여행코스와 콘텐츠 개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된다.

선발 후에는 청년이 전남의 섬 관광기획자로 성장하도록 체계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활동비를 지원한다. 전문가 특강과 도내 우수사례 현장답사 등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정하고, 체류형 섬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섬 2주 살아보기 프로그램과 2개월 동안의 실무 인턴십 교

육을 한다.

교육 수료자 전원에게는 전남도에서 활동인증서를, 성적 우수자에게는 전남관광재단에서 취업추천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섬의 삶과 지혜가 담긴 명소, 체험, 먹거리를 발굴하고 상품화함으로써 섬 주민과 청년이 함께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미자 전남도 관광과장은 "젊은 청년의 관점에서 지금껏 우리가 몰랐던 섬의 역동성과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발굴해 유행을 좇는 섬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코로나 이후 변화하는 섬 관광의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남도의 '가고 싶은 섬', '섬 코디네이터 양성' 등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제대로 즐길 수 있는 진짜 섬 관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업기술원, 지역특화 가공식품 중국 수출

보성녹차라떼, 유자샌드위치 등

전남도농업기술원은 최근 중국 유통 전문업체인 (주)제이아이치이글로벌을 통해 전남지역 특화 가공식품을 중국에 수출했다.

지난 18일 수출한 가공식품은 8개 품목에 걸쳐 모두 3200만원 상당이다.

도농업기술원이 연구·개발한 '보성녹차라떼', '유자샌드위치', 무안군 소재 농업회사법인 조목당의 '순양파어간장', '맑은국양파장', 현대영농조합법인의 '순양파키즈', 고흥군 소재 영농조합법인 엔자임팜의 무설탕 '딸기잼-블루베리잼-유자잼' 등이다. 도농업기술원은 앞서 올해 상반기 중

국과 미국에 지역 가공식품을 수출한 바 있다. 10여개 품목, 6600만원 상당이었다. 도농업기술원은 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역 특화 가공식품 수출농가 해외마케팅 지원, 중국 유학생 대상 홍보 마케팅, 수출 경쟁력 있는 우수 상품 발굴·컨설팅을 하고 있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조경철 연구사는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다"며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식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출 유통 가공식품을 발굴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동백나무



대나무 향초



참나무겨우살이



참바늘 버섯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자생자원서 바이오 산업 활로 찾는다

동백나무 발효공정별 생리활성 등 산림과학 학술대회 논문 5편 발표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동백 등 전남지역 자생자원을 활용한 산림과학 분야 우수 논문 5편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24일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사)한국산림과학회와 공동으로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는 '뉴노멀 시대 산림의 가치-평화와 탄소중립'을 주제로 온·오프라인으로 열렸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가 발표한 연구성과는 ▲발효 조건에 따른 동백잎과 열매껍질의 생리

활성 분석 ▲대나무 가공재 발생 곰팡이균 분리 동정 및 생장특성 ▲참나무겨우살이 추출물의 생리활성 및 기능성 분석 연구 ▲복령, 꽃송이버섯, 참바늘버섯, 표고버섯 생리활성분석 ▲대봉감 '갑주백묵' 재배지의 해박고도에 따른 동의의 저온피해 연구다.

동백잎의 경우 뒤움처리해 생리활성을 분석한 결과, 일반 차류보다 폴리페놀과 항산화효과가 10~3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두경부암세포 억제 효과가 높은 것을 확인, 이를 특허출원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K-바이오 산업이 미래성장 동력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바이오경제 시대에 발맞춰 도내 산림자원을 활용한 레드바이오(의약품), 그린바이오(건강기능식품), 화이트바이오(화학제품 대체) 등 지속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산림과학 공동학술대회에 발효균을 이용한 귀지뽕나무 기능성물질 증진 연구 등 5건의 논문을 발표했고, 발효고사리 항암효과 등 4건의 지식재산권을 확보했으며 비자나무 향바 이러스용 조성물 등 2건의 기술을 도내 업체에 기술이전 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이같은 산림자원의 기능성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식의약 산업화 모색을 위해 총사업비 200억 원을 들여 지역 산림 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될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3년 말 완공을 목표로 산림비즈니스센터, 종자양묘기술센터, 스마트온실, 양묘생산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도, 추석 맞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특판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기 위해 오는 9월 15일까지 추석 명절 특별판촉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판촉행사에선 기존 판매가격의 최대 15%까지 할인한다. 추석명절 소비자의 구매 요구를 반영한 100여 종 상품으로 다양하게 구성했다.

친환경 명절 제수용품인 고기, 배, 밤, 조기 등

농수산물 선물세트와 주부들이 좋아하는 김부각, 들기름, 잡곡, 전통된장, 장아찌, 나물, 갓김치 등이다. 판촉행사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녹색나눔), 남도장터, 우체국쇼핑몰,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 장흥 상생사회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공익 목적으로 영리활동을

벌이는 기업이다. 소위 착한 기업의 대명사로 불린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하는 등 최근 주목받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앞장서고 있다. 전남도는 민선7기 사회적경제 기업 2000개 육성을 목표로 현재 1842개(92%), 300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장정희 전남도 사회적경제과장은 "착한 소비를 통해 가족·친지들과 정도 나누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도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농업기술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현장에서 수리하고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 여성

농업인 등의 농기계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수리하기로 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상반기 영광군 등 5개 시·군 15개 마을에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했다. 176 농가에서 211건의 고장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 교육을 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전남농업기술원 유영후 농업교육과장은 "수확기 이전, 농기계 사전 점검을 마치고 농민들,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도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농업기술원,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수리

전남도농업기술원이 수확철을 앞두고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에 나선다.

24일 전남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말까지 해남군을 시작으로 3개 시·군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순회 수리를 한다. 순회 봉사를 위해 도농업기술원은 농기계 교환 및 품목별 전문지도사 10명으로 편성된 농기계 합동수리반을 꾸렸다. 합동수리반은 순회 수리 과정에서 농기계 점검·정비요령, 안전관리 방법 등 농업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이다. 농가 소유 농기계 가운데 고장 방치된 것들은 마을 회관 등

현장에서 수리하고 고령 농가와 취약계층, 여성 농업인 등의 농기계는 직접 농가를 방문해 수리하기로 했다.

도농업기술원은 지난 상반기 영광군 등 5개 시·군 15개 마을에 농기계 순회 수리 봉사를 했다. 176 농가에서 211건의 고장 농기계를 수리하고 정비 교육을 해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전남농업기술원 유영후 농업교육과장은 "수확기 이전, 농기계 사전 점검을 마치고 농민들, 도로 및 농경지 등에 방치된 폐농기계도 수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전남인재교육진흥원 '희망전남 장학금' 9월 3일까지 신청

(재)전남인재재정교육진흥원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전남 장학금' 신청을 9월 3일까지 접수한다.

'희망전남 장학금'은 총 6660여명을 대상으로 1인당 60만원을 지급한다. 전남에 있는 모든 대학의 졸업학년도 재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1년 이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지급 대상이다.

재단법인 전남인재재정교육진흥원 누리집(www.jntle.kr)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전남인재재정교육진흥원은 장기간 이어지는 코

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업이 어려운 지역 대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고 격려하기 위해 이번 장학금을 도입했다.

대학생들의 취업 준비 및 생활안정 지원금으로 이용되며, 타 장학금과 이중수혜도 가능하다. 전남인재재정교육진흥원은 지역 대학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통해 절차를 대폭 단축, 9월 중 장학금을 전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인재재정교육진흥원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부동산중개법인 한국토지부동산

강력추천! 투자가치 100% 확신!

다세대빌라

(북구 운암동)

- 대 지 : 364 m²
- 건 물 : 411 m²
- 층 수 : 3층
- 세대수 : 6세대
- 평 형 : 24평형

매매가 : 540,000,000원

상담 010-3733-3933